

## 200자 안내

### 노벨문학상 소프트 (1·2)

주장환 엮음

1901년부터 1993년까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다이스트한 책. 헤세의 「싯다르타」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까뮈의 「이방인」 나집 마흐프즈의 「도적과 개들」 등 40여 편의 소설을 1, 2권에 걸쳐 요약 수록했다. 이와 함께 작가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역대 노벨문학상을 살펴봄으로써 근

현대 세계 문학의 흐름을 파악케 한다.

삶과함께 / A5신 / 각 380면 / 각 6500원

### 어린이 안전교실

한국어린이생활교육회 엮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지침서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78가지와 응급처치 요령 10가지를 수록했다. 이 안전수칙들이 적용되는 범위는 놀이터, 버스, 지하철, 집, 학교 등 어린이들의 활동영역 전반에 걸친 것으로, 가령 “전화가 오면 어른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식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버스가 완전히 선 다음에 내려요” 등 어린이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록된 안전수칙들은 모두 그림과 함께 실려 활용하기 편리하다.

웅진출판(주) / A5신 / 200면 / 4000원

###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

토머스 머튼 지음 / 이영주 옮김

동양사상과 깊은 이해를 갖고있는 저자가 자신의 종교철학과 동양사상을 연결시켜 동서양 종교의 신비주의 전통을 살펴본다. 제1장에서 저자는 과거의 禪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영성과 신비성을 이해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신비주의의 토대라 불리는 중국의 사상과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예수회 활동을 살펴본다. 제5장에선 순례 여행의 의미를, 제6장에선 종교의 순결성을, 제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금욕적인 러시아 정교, 개신교 수도원의 생활공동체, 세이크교도의 금욕과 노동 등을 소개한다.

고려원미디어(주) / A5신 / 356면 / 6800원

### 불바다

노수민 지음

동북아시아의 가상 현실을 그린 장편소설. 이 소설은 지난 3월 남북한 회담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측 대표의 발언과 회담결렬, 그로부터 비롯된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상태에서 출발한다. 강대국의 파워게임에 휘말려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피해지고 국제관계가 대립된 상황에서 미국은 핵미사일을 평양으로 날리고, 같은 시기 러시아 극동함대는 동경으로 핵을 발사한다. 이로써 서울과 동경, 평양은 불바다가 되는데…….

향실 / A5신 / 352면 / 5500원

### 망가진 바이올린 (상·하)

던 R. 쿤츠 지음 / 한옥경 옮김

뉴욕타임즈 장기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면서 스무살의 작가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스티븐 킹의 장편소설. 정부 산하 배노다인 실험실에서는 유전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진 두 생명체를 극비에 생산한다. 하나는 놀라운 지능을 가진 황금빛 사냥개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하나는 잔인하고 광포한 본능을 가진 괴물 ‘아웃사이드’이다. 어느날 사냥을 나선 트레비스는 아인슈타인을 발견하고 그 개를 보호하기로 결심한다. 이때부터 트레비스는 아인슈타인을 쫓는 아웃사이드와 연방정부의 집요한 추적에서부터 도망친다.

글사랑 / A5신 / 각 328면 / 각 5000원

### 개뿔 (1·2)

박범신 지음

조직사회의 권력구조와 여기서 파생된 개인의 희생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작가는 한대성이라는 인물을 작중 화자로 내세워 대학생활에서의 사랑과 방황, 우정을 그린다. 시골출신인면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대성은 어느날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겪는다. 친구가 사랑하던 여자친구를 희롱했던 그는 죄책감을 느껴 학교를 그만둔다. 고향친구들과 이삿집 센터를 운영하던 그는 Q그룹의 오상무를 알게 되고 그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한다.

세계사 / A5신 / 각 304, 280면 / 각 5000원

### 알기쉬운 성경의 역사

사무엘 C. 김 지음 / 정동수 외 옮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 성경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예수의 행적,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한다. 저자는 이집트인의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삶이 성경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이들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말씀과만남 / A5신 / 272면 / 4500원

### 예수와 목자

문익환 외 지음

동양사상가 기세춘과 종교사상가이자 통일운동가인 故문익환 목사, 그리고 통일신학자로 알려진 홍근수 목사, 이들 세사람이 벌인 신학논쟁을 엮은 책. 총 6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기세춘의 목자와 예수에 대한 비교론, 제2부부터 제5부까지는 문익환과 홍근수가 감옥에서 기세춘의 「목자」를 읽고 보낸 편지 및 이에 대한 기세춘의 답장이다. 마지막 6부에선 홍근수의 ‘예수론’이 펼쳐진다.

일월서각 / A5신 / 394면 / 7000원

### 오줌싸개의 한방치료

이진용 지음

3년간 야뇨증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한 저자가 풍부한 임상경험과 체계적인 의학지식으로, 한방을 통한 오줌싸개 치료법을 소개한 책. 저자는 어린이의 야뇨증과 유노증이 배뇨를 담당하는 척추신경의 성숙이 지연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고 한다. 제1부는 야뇨증의 정체와 그것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소개하고, 제2부에선 침뜸, 부항, 지압, 추나, 광선, 식이요법 등 야뇨증 치료에 쓰이는 처방을 실어 전문임상가들이 참고케 한다.

열린책들 / A5신 / 288면 / 5800원

### 문민 IQ

지만원 지음

「신바람이나 시스템이나」의 저자가 시스템 시각에서 GR, BR, TR, WTO, 북한 핵, 통일문제 등을 분석한 책. 제1장에서 저자는 UR협상과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통치’ 개념 보다 ‘경영’이라고 한다. 제2장 ‘북한 핵문제’에선 핵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볼 때, 한국군의 장래와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저자는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에 시스템 사고를 도입할 것을 역설한다.

경문사 / A5신 / 256면 / 4800원

### 따꺼 (1·2)

홍순도 지음

중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폭력의 대명사로 불린 장개석과 두월생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했던 범죄커넥션은 물론, 1만여 명에 이르는 밤의 꽃들로 公娼을 운영한 전설적 인물 두월생의 생애까지 파헤친 소설. 대만으로 연수를 떠난 일간지 기자 황병덕은 어느날 아침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미모의 중국여인을 발견한다. 아주 우연한 이 일로 그는, 뿌리깊은 대만의 폭력조직과 승부를 벌이는 운명에 빠져든다.

한계례 / A5신 / 각 280, 288면 / 각 5000원

### 건강가족

가톨릭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엮음

가정요법지침서로서 최근의 건강상식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그리고 흔한 증상 및 대책을 담고있다. 연탄가스에 중독됐을 때, 골절상을 입었을 때, 눈·코·귀·목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전기에 감전됐을 때 등 위급한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응급처치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소화기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정신질환, 신경계, 알레르기, 감염성 질환, 혈액질환 등 흔히 앓는 질병들을 세세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 장마다 뜯을 수 있도록 제작돼 필요한 부분은 뜯어서 붙여도 좋다.

오픈아트 / B5 / 242면 / 13,000원

### 신비의 솔잎치료법

上元美鈴 지음 / 유태중 감수

치매중에 걸린 남편을 솔잎주스로 회복시킨 저자의 치료수기와 함께 솔잎치료법의 다양한 효과와 활용법을 서술한 책. 솔잎의 유효성분을 분석한 제2장에선 각 질병의 증상에 따른 솔잎치료법을 설명한다. 제3장은 솔잎주, 솔잎차, 솔잎식사, 솔잎담배, 솔잎목욕 등 예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에 현대적인 방식을 접목한 활용법을 일러준다. 장수식이자 신선들의 선식으로 알려진 솔잎건강법의 모든 정보가 망라됐다. 부록으로 ‘건강의 묘약’으로 불리는 ‘견는’ 건강법이 소개된다.

국일미디어 / A5신 / 268면 / 7000원

### 우리시대의 한의학

공동철 지음

한국의 한약본쟁과 미국의 의료보호 제도 개혁 등 세계 각국이 현재 의료 개혁의 와중에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전통의학이 국제 시장에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책. 전반부에선 한국과 미국의 의료개혁 상황과 그 의미, 그리고 서구 의료체계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후반부에서는 한의학의 지혜와 현재 한의학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해 국제화하고 서구의료시장에도 진출할 것을 역설한다.

학민사 / A5신 / 264면 / 5500원

###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었으면 (1·2)

박권상 지음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해본 정치칼럼집. 제1권 ‘이 시대의 목소리, 역사의 흐름’은 선거유세부터 현명한 국민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서 갖춰야 할 정치인의 도덕관을 지적한다. 선거에 항시 등장하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물론이고 국민의 가치

